



은밀히 자라는 씨, Monotype, Pop-up, 35x25, 2008년

## 이서미, 상상을 깨우는 그림

6 서성복(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이서미는 홍익대학교 평화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 인디고 등에서 10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각종 아트 페어와 기획전 등에서 130차례의 단체전을 열었다. 동화책의 '팝업' 기법을 화면에 도입하였는가 하면 프레스가 짜힐 때의 깊고 부드러운 효과를 장점으로 하는 판화의 일종인 모노타입을 애용하고 있다.

이서미를 생각할 때면 떠오르는 소설가가 있다. 꿈과 희망을 전해주는 작가 로이스 로리(Lois Lowry)다. 『별을 헤어리며』, 『기억전달자』 등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여 권의 작품을 저술했는데 그중에서도 『행복지킴이 키퍼』는 한때 잘 나가던 광고모델로 재물도 쌓았지만, 지금은 시골 마을의 한 가정에서 평생을 행복지킴이로 살아가는 건공의 이야기이다.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날카로운 관찰과 엉뚱한 상상으로 시종 유쾌하면서도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인생 유전'을 깨어 비유하여 그처럼 쓸 수 있다면 로이스 로리의 기발한 상상력에 감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로이스 로리가 기발한 상상력으로 독자를 사로잡는다면, 이서미는 우화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다. 소설과 그림이라는 차이가 있지만 설 새 없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쏟아내며 감성자를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삶의 무대를 마치 동화의 나라처럼 바꾸어주거나 잠시 잊고 있었던 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주는 것이 마치 소설을 읽는 것인지 그림을 보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한다.

작가는 여행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 집과 거리의 표정을 정감있게 풀어낸다. 〈큰 길〉에서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지루한 길을 지치지 않고 달리는 사람들을, 〈마치〉

에서는 봄날을 맞아 숲길을 걷는 한 가족을, 〈자라다〉에서는 30배, 60배로 무럭무럭 성장하는 식물들, 〈눈부신 거리〉는 가로수 옆 건물 안의 풍경들, 〈내비와 개〉는 초록 잔디 위에 앉은 강아지 주위를 나뭇가리는 나비를 각각 실어냈다. 〈다른 세상〉은 꿈과 현실을 따로 경계를 짓지 않고 버무린다. 사뭇을 태운 고래가 방긋 웃으며 수면 밖으로 시원스레 물을 뿜어내고 있고, 그 아래로는 형형색색의 물고기가 수

초 사이를 기르며 유유히 헤엄치고 있다. 푸른 색조는 싱그러움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낙천성을 나타내준다. 파격한 세상과는 구별되는 〈다른 세상〉을 자신의 상상한 조형언어로 펼쳐 보인다.

그의 작품은 어떤 화풍으로 묶을 수 없는 특징을 지닌다. 굳이 분류하자면 '소박파'(Naive art)라거나 할까. 그 자 신만의 개성에서 비롯된 독특한 스타일을 지닌다. '소박파'는 유파로서의 뚜렷한 형태를 띠지 않지만, 미술의 양식분류에 구애되지 않는다. 자연과 현실의 시각적인 대상에 대하여 소박한 태도로서 간강한 예술의 추구를 작품의 기초로 삼는 작가들을 지칭한다.

이서미를 '소박파'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종래의 모델링이나 전통적인 기법을 떠나 순수하고 동화적인 스타일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아지각기한 구성이나 비례에 얽매이지 않는 재현, 주관적인 형태모사는 다른 작가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림에서 보자시피 어릴 적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을 시절의 구김살 없는 표현과 즉흥적인 필치가 돋보인다. 허나허나의 이 미지가 제각각 서로 다른 표정과 동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화면 분위기를 한층 북돋아 준다. 또한, 발랄함과 생동감을 주기 위해 작가는 이미지들을 자르고 접고 붙이는 등 팝업 수법을 동원하여 동화 같은 인물표현으로 감상의 재미를 더해준다.





그의 작품 중에 무대로 걸어 나오는 어린이를 축하해주는 <동장>이란 작품이 있다. 무수한 사람이 객석에 앉아 있고 부모인 듯한 인물이 조그만 통로로 걸어오는 아이를 두 손을 들어 맞이해주는 무대이다. 만화풍의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생각을 던져준다. 아이가 걸어오는 무대는 '공연 무대'가 아니라 '인생 무대'이며 관객은 그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이서미의 그림에서는 훈훈한 이야기들이 꼭지를 틀어놓은 수뭇물처럼 활활 흘러나온다.

그의 작품의 한 축이 일상에서 비롯된다면, 다른 한 축은 성경에서 비롯된다. 특히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는 그의 작품세계에 커다란 부분을 차지한다. 이서미는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그림을 알기 쉽고 재미난 이야기구조로 재구성한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나라 작가 중 성경 그림을 재해석한 작가들은 은보 김기창, 김학수, 서봉남 등이 있었다. 이들 작가가 수태고지, 예수의 체재, 복음사역, 최후의 만찬, 책형, 부활 등 예수의 일대기를 화폭에 담았다면, 이서미는 비유의 예화만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그의 그림에는 예수의 초상이나 십자가와 같은 기독교적 도상은 등장하지 않지만 이서미는 성경의 이야기를 그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면서 기독교 미술의 새 지평을 제시한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평범한 풍경화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인다. 한 가족이 아늑한 집에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작품이다.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재봉을 피우는 아이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바깥 풍경은 정면대로 폭우가 쏟아지고 강물이 급격히 불어나 이들 가족을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기세이다. 그러나 이 가족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덕분이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의 진정한 티가 되시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작품이다.

<은밀히 자라는 씨>에서는 두 어린이가 땅에 앉아 새싹을 바라보는 광경이 포착된다. 뒤쪽의 농부는 황금빛 들녘의 벼를 수확하는 중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가 주목하는 것은 농부가 씨를 심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농부는 파종하고 김을 매고 거름을 주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씨앗 안에 신비한 생명력을 주셔서 결실을 볼 때까지 돌보아주신다. 씨앗의 생장력도 그렇지만 밭이 단계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 땅으로 올라오는 것, 비를 뿌리시고 햇볕을 주시는 것도 따지고 보면 환경의 도움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작가는 <은밀히 자라는 씨>가 땅에서 올라오고 무럭무럭 자라며 결실을 보

는 단계까지를 한 화면에 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다.

<씨>는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착안한 그림이다. 화면 중앙에 밀짚모자를 쓰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등장한다. 이 그림도 알핏 보면 평범한 농촌풍경을 형용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그러나 씨앗의 파종 위치를 눈여겨 관찰하면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농부 뒤에는 새들이 조금 전에 농부가 뿌린 씨앗을 쫓아먹고 있고 하단의 꽃을 경계로 갈기와 자갈밭에 뿌려진 씨들은 사람들의 발에 밟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금세 말라죽어 버린다. 지금 농부가 옥토에 뿌리는 씨앗만 이 풍성한 결실을 기약할 수 있는데 마가는 이 사람이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로 올라가면서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누가는 백 배의 결실만을 언급한 바 있다. 성경의 내용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아도 어디에 씨가 뿌려지느냐에 따라 그 결실이 확연히 달라진다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서미에게 풍부한 영감을 제공한다. 보이는 모습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음미케 하며 일반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작품의 하나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인데 이 작품에는 무화과나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과수원지기가 등장한다. 내용인즉 열매를 얻기 위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삼 년이 지나도록 실과를 맺지 못하자 주인이 찾아와 나무를 베어버리기 직전에 과수원지기가 조그만 기다려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모습이다. 그 후 무화과나무가 베어졌는지 유예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작가는 얇만 무성한 나무와 포도송이가 열린 포도나무를 대조함으로써 결과 속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키가 큰 나무는 보기는 좋아도 내실이 없는 반면에 볼품 없는 포도는 주인의 기대대로 과실을 충분히 맺고 있다.



서명: 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사정학과 동대학원 미학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작으로는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 '템브라트의 기복한 상상력', '미술의 타락요인', '마수근', '템브라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갑추인 보화>는 인생의 행로를 따라가던 나그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꾸짖어질 을 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금은보화가 든 상자를 발견하고는 뿔뿔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밭의 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림은 보화를 발견한 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인공은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비찬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주인공의 안면에는 감출 수 없는 환한 미소가 피어나고 있다. 작가는 아마도 이 그림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감격적 순간을 영상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느끼는 환희를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사람들은 제마다 다른 비유의 짐을 짓고 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의 집에선 슬픔과 비탄의 곡조가 새어나오지만 이서미가 머무는 마음의 집에서는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찬가가 멈추지 않는다. 그는 '가시와 엉겅퀴'로 뒤엉킨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과 창의력을 자신의 예술적 원동력으로 삼는다. 가장 귀한 예술적 재능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작가일 수 있다. 그를 보면서 예술가는 흔히 말하듯 무즈에 영감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작가가 평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그 같은 작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작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준 다. 그리하여 누구나 알기 쉽고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그런 까닭에 그의 작품을 보고 있다면 전기수(傳記)의 구수한 입담처럼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절로 빠져들게 된다. 이서미는 '은혜의 광택에서 금빛 예술을 깨내는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